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도 은 수¹⁾ · 서 영 숙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2011). 다양한 사회문화 중에서 성문화는 서구의 성 개방풍조, 대중매체의 노골화된 성적 표현 등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Choi & Ha, 2004). 성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웰빙한 상태로서(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0)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함을 의미하므로 청소년기에 있어 성적체성과 친밀감, 자율성은 성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Zimmer-Gembeck & Helfand, 2008).

특히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이므로, 신체적으로는 성적인 잠재기에서 벗어나 이성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생기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다(Lee, 2007). 게다가 대학에 들어옴과 동시에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이 획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사회로부터 자유를 부여받게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빈번해진다(Chang, 2002; Choi & Song, 2006).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 성 정체성과 친밀감 측면에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구와 이성적 통제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충동적인 관계를 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성문제를 경험하게

된다(Chang, 2002; Kim, 2003).

우리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소년기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성교육의 경험이 있다. 그러나 MHW (2011)이 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성행동 중 남학생 50.8%, 여학생 19.0%가 성교경험이 있으며, 성폭력과 성병 등의 성지식 항목에서는 56.4%와 54.2%로 낮았고, 성관계를 하는 대학생 1,970명 중 9.4%가 임신을 한 적이 있고, 이들 중에서 45.9%가 낙태 합병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대학생의 성문제는 그들이 성 관련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그러한 정보가 성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심리적, 행위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감을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Chang, 2002; Hur et al., 2007). 이에 대학생은 올바른 성교육을 희망하였으며, 성교육을 통하여 피임법과 남녀 신체적, 심리적 차이 등의 생리적 지식(MHW, 2011) 뿐만 아니라 성윤리, 사랑의 의미와 책임, 나아가 성가치관에 관련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r et al., 2007). 또한 이러한 경험은 원치 않은 임신이나 인공유산, 성병 등으로 심리적 혼란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Kim, Kang, & Jeong, 2012), 대학생에게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성적 자율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Kim & Yoon, 2012; MHW, 2011).

자율성은 자기결정성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다(Chang, 2002; Deci & Ryan, 1985). 성적인 측면에서의

주요어 :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

1)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seol1657@naver.com)

접수일: 2013년 4월 1일 1차 수정일: 2013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 2013년 5월 1일

자율성은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Deci & Ryan, 1985). 이에 성적 자율성은 성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므로 성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성을 유지할 수 있다(Chang, 2002).

성적 자율성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정도는 성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성행동과 성적 자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Moon, & Kang, 2011; Whang, 2009). 이는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높고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성관계와 성행동에 대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Choi & Ha, 2004; Chang, 2002; Whang, 2009) 성적 자율성의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고자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이행하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되며(Bandura, 1997), 이는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1). 이를테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성관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성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므로(Chang, 2002) 성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 Yoon, 2012).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성적 자율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사회의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생의 성행동과 성충동, 성태도, 자기효능감과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고, 다양한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있다(Choi & Ha, 2004; Hur et al., 2007; Kim & Yoon, 2012).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성적 자율성과 관련된 개인적 위험요인과 환경적 위험요인이 단편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성적 자율성 관련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행동적·심리적 변인과 성적 자율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성적 자율성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설명하는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성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 성지식과 성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 및 성적 자율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시, P시에 소재하는 2개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Cohen의 검정력 분석(power analysis)을 근거로 G*Power 프로그램 3.1.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05, 효과 크기 중간(effect size=.15), 요인 통계적 검정력=.95로 산정한 결과 표본수는 172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는 232명으로 Cohen의 공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의 자율성 및 비밀보장에 대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연구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총 24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들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8부를 제외한 총 23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특정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Bandura, 1997), Sherer 등(1982)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도구를 Lee (2000)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도구의 점수는 최저 17점에서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1, Lee (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 성지식

성지식은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로(Jeon, Lee, & Rhee, 2004), Jeon 등(2004)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생식 생리 8문항, 성 심리 3문항, 임신 8문항, 피임과 낙태 5문항, 성병과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10문항, 성폭력 1문항이다. 도구의 점수는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으로, 최저 0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 성태도

성태도는 성에 대해 자기의 이념, 지각 및 성향으로(Kim & Yoon, 2012), Lief와 Payne (1975)이 개발한 Sexual Knowledge & Attitude Test 도구를 Kim (198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몽정, 자위행위, 피임, 에이즈 등을 질문한 신체 생리적 측면 5문항, 성적 호기심, 성충동 등의 심리적 측면 5문항, 인공임신중절, 순결, 성윤리, 성문제

및 비행 등의 윤리적 측면 7문항, 성폭력, 성문제 의논대상, 성지식매체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 8문항이다. 도구의 점수는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최저 25점에서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1, Kim (1986)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76이었다.

●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실현시키는 의지이며 행위로(Chang, 2002), Chang (200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도구의 점수는 최저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 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Table 1. Differences in Sexual Autonom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2)

Variables	Categories	N (%)	Sexual Autonomy		
			M (SD)	F/t (ρ)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00 (43.1)	48.38 (8.31)	12.404
		Female	132 (56.9)	52.31 (8.50)	(.001)
	College major [†]	Humanities & Social Science ^a	58 (25.0)	46.53 (8.92)	9.387
		Health ^b	82 (35.3)	52.27 (7.44)	(<.001)
		Art & Athletics ^c	92 (39.7)	51.71 (8.69)	a<b
	Year in college	1 ^a	94 (40.5)	48.30 (9.09)	7.299
		2 ^b	40 (17.2)	48.50 (8.58)	(<.001)
		3 ^c	42 (18.1)	53.43 (7.34)	a,b<c,d
		4 ^d	56 (24.2)	53.71 (7.86)	
	Residential type	Live with family	96 (41.4)	50.79 (8.54)	
Boarding house		20 (8.6)	50.80 (9.53)	0.222	
Self-catering		24 (10.3)	49.25 (8.53)	(.881)	
Dormitory		92 (39.7)	50.75 (8.64)		
Sexual characteristics	Sexual attitude of parents	Openness ^a	79 (34.1)	46.92 (9.70)	12.034
		Semi-openness ^b	129 (55.6)	52.50 (7.15)	(<.001)
		Closed ^c	24 (10.3)	52.67 (8.52)	a<b,c
	Sex education	Yes	198 (85.3)	52.31 (7.72)	66.803
		No	34 (14.7)	40.76 (6.92)	(<.001)
	Sexual acceptable	Talking/holding hands ^a	67 (28.9)	52.42 (7.81)	4.421
		Petting/kissing ^b	110 (47.4)	51.24 (9.03)	(.013)
		Sexual intercourse ^c	55 (23.7)	48.12 (9.10)	b,c<a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96 (41.4)	51.90 (8.14)	3.646
		No	136 (58.6)	49.71 (8.89)	(.057)
Pregnancy in self or partner	Yes	6 (2.6)	41.33 (6.83)	7.333	
	No	226 (97.4)	50.86 (8.54)	(.007)	

† Duncan-test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양측검정을 하였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정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적 자율성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line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적 자율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 100명(43.1%), 여학생 132명(56.9%)이며, 전공학과는 예체능계 92명(39.7%), 학년은 1학년 94명(40.5%), 거주형태는 자택 96명(41.4%), 부모의 성태도는 ‘보통’이 129명(55.6%),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198명(85.3%),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 허용 수준은 ‘애무와 키스’가 110명(47.4%), 과거의 성경험은 ‘없다’가 136명(58.6%), 자신이나 파트너가 임신경험은 ‘없다’가 226명(97.4%)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t=12.404, p=.001$)은 여성이, 전공학과($F=9.387, p<.001$)는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의료보건계열이 성적 자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학년($F=7.299, p<.001$)은 1, 2학년보다 3, 4학년이 성적 자율성이 더 높았으며, 부모의 성태도($F=12.034, p<.001$)는 ‘개방적’ 보다 ‘보통’과 ‘보수적’인 경우가, 성허용 수준($F=4.421, p=.013$)은 낮을수록, 성교육

($t=66.803, p<.001$)은 받은 경우가, 임신 경험($t=7.333, p=.007$)은 없는 경우가 성적 자율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총 85점 중 55점, 성지식은 총 40점 중 23점, 성태도는 총 135점 중 88점, 성적 자율성은 총 75점 중 5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elf-efficacy, Sexual Health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Autonomy (N=232)

Variables	M (SD)	Observed range
Self-efficacy	55.15 (8.32)	39-85
Sexual health knowledge	23.36 (3.80)	11-37
Sexual attitude	88.39 (22.17)	41-124
Sexual autonomy	50.62 (8.62)	32-65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간의 관련성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성지식은 자기효능감($r=.43,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성태도는 성지식($r=.20, p=.002$)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적 자율성은 자기효능감($r=.56, p<.001$), 성지식($r=.50, p<.001$), 성태도($r=.29,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성적 자율성의 영향요인

성적 자율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Sexual Health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Autonomy (N=232)

Variables	Self-efficacy	Sexual health knowledge	Sexual attitude
	r (p)	r (p)	r (p)
Sexual health knowledge	.43 (<.001)		
Sexual attitude	.08 (.245)	.20 (.002)	
Sexual autonomy	.56 (<.001)	.50 (<.001)	.29 (.001)

Table 4. Variables Predicting Sexual Autonomy in Participants (N=232)

Variables	β	R ²	t	p
Self-efficacy	.332	.308	6.221	<.001
Sex education	.283	.399	5.679	<.001
Sexual health knowledge	.247	.459	4.290	<.001
Sexual attitude	.188	.496	3.947	<.001
Adjusted R ² =.487		F=47.750, p<.001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Table 4), 예측변인은 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전공학과, 학년, 부모의 성태도, 성허용 수준, 성교육, 임신경험 변수와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 변수가 선택되었다. 명목변수인 전공학과는 ‘인문사회 학계열’을, 학년은 ‘1학년’을, 부모의 성태도는 ‘개방적’을, 성 허용 수준은 ‘이야기와 손잡기’를 기준으로 각각 가변수 처리 하여 분석하였고, 변수의 다중공선성과 잔차분석을 하여 정규 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효능감 ($\beta=.332, p<.001$), 성교육($\beta=.283, p<.001$), 성지식($\beta=.247, p<.001$), 성태도($\beta=.188, p<.001$)로 나타났으며, 성적 자율성은 자기효능감, 성교육, 성지식, 성태도가 48.7%로 설명하였다 ($F=47.750, p<.001$).

논 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성적 자율성이 높았으며, 고학년 일수록, 보건의료계열에서, 부모의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성교육을 받은 경우에서, 성 허용 수준이 낮을수록,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성적 자율 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Chang과 Lee (2003)와 Kim 등(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유교적인 문화의 발달로 딸들에게는 아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보호할 것과 혼전성교를 피 하도록 하는 부모들의 보호적, 교훈적 성행동기준이 자녀들에게 수용된 결과(Chang & Lee, 2003; Chang, 2002)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성태도와 성교육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는 기회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성 정체성을 형 성할 수 있고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부모님의 성태도와 관련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년별에 따라 성적 자율성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저학년일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Kim 등 (2012)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고학년은 저학년 보다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도 많고 다양한 직·간접적 인 경험을 하게 되므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학과는 Kim과 Yoon (2012), Kim 등(2012)의 연구에서 인문계열이 성적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 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의 성적 자율성 이 타 전공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전공학문이 통념상 인간의 생물학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총체적인 존엄성을 강조하므로 자신의 신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료보건학문은 성과 관련된 질병과 낙태 등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Kim et al., 2011; Kim & Yoon, 2012) 직·간접적으로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교육 경험은 Kim 등(2011)와 Kim 등(2012)의 결과와 일 치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이나 초, 중, 고등학교로부터 받은 성교육 경험이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성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결 과(Chang & Lee, 2003)를 고려할 때 스스로의 성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성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 그램 개발에 관심이 기울여야 하겠다.

성허용 수준과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차이는 성허용 수준이 낮을수록, 성교 경험이 없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게 보고된 Kim 등(2012)의 결과와는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대학생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하며, 또 한 신체적 접촉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 사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장훈련이 필요하다고 본 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성지식, 성태도 및 성적 자율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서로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 타났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성 교육, 성지식, 성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대학생 의 성적 자율성을 48.7% 설명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예측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Kim 등(2011), Kim과 Yoon (2012), Choi와 Ha (200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올바른 성지식 정도가 성태도 및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선행연구(Choi & Ha, 2004; Kim et al., 2011)에서 자 기효능감은 성적 자율성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 는 많은 사회와 문화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 하였다. Kim 등(2011)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성관계나 성행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자율 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Pearson (2006)은 자기효능감이 성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예측요 인으로 들었고, Chang (2002)도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직무뿐만 아니라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성 적 자율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볼 때,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교육은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이는 대학생이 성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적 자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Chang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시기이므로 이성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고 성충동을 느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다(Kim et al., 2011). 반면 대학생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Choi & Ha, 2004), 이러한 성 관련 내용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 자극적인 성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MHW, 2011). 또한 MHW (2011)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성교육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은 피임법으로, 피임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은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교육은 단순한 성지식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재정립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관계의 단순한 억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안전한 성관계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Kim & Yoon, 2012). 따라서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일방적 교육방식보다는 스스로가 자기 몸을 돌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성적 의사결정 능력, 책임감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성지식은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Choi와 Ha (200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Jeon 등(2002)에 의하면 성지식은 남녀의 성적 특징과 그것으로 인한 욕구와 표현의 차이에 대해 아는 것으로, 이는 대학생의 성지식 정도에 따라 성행위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Chang, 2002). 또한 성지식은 단순히 성에 대한 생리나 피임 등 기능뿐 아니라 건강한 성 가치관의 형성과 올바른 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포함한 지식을 고려하여 습득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성교육시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태도는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hang (2009)의 연구에서 성태도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태도는 성인기의 성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과 관련하여 자신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므로(Zimmer-Gembeck & Helfand, 2008) 성적 자율성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Whang (2009)은 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은 성적 좌절감과 성적 일탈 행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성태도는 성에 대한

작기의 생각이나 느낌, 지각 및 성향으로(Kim & Yoon, 2012), 성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타인의 요구보다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성교제에 대한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고 더불어 올바른 성태도의 확립이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성 건강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성문제에 대한 상담 및 효과적인 성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율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성교육, 성지식, 성태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성적 자율성을 48.7%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교육을 받을수록, 성지식과 성태도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성교육은 성적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주기적인 성교육 중재 방안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 표집을 무작위로 하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 내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hang, S. B. (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8, 106-115.
- Choi, H. Y., & Song, J. A. (2006). The effects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through adolescents' sex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 47-58.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10, 318-330.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Hur, M. H., Ahn, H. Y., Kwak, E. A., Kim, K. M., Park, J. Y., & Lee, J. I. R. (200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267-275.
- Jeon, G. S., Lee, H. Y., & Rhee, S. J.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45-68.
- Kim, K. W., Kang, K. H., & Jeong, G. H. (2012).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 51-59.
- Kim, S. (1986). A survey of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need of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Yonsei Nursing Science Research Center*, 9, 1-12.
- Kim, S. H., & Yoon, W. C. (2012).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 248-257.
- Kim, S. J., Moon, S. T., & Kang, H. S. (2011).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434-443.
- Kim, S. M. (2003). Knowledge on sexuality and needs of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9, 489-498.
- Lee, H. Y. (2007). *Comparative analysi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Lee, C. C. (2000). *Analysis of factors related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Lief, H. I., & Payne, T. (1975). Sexuality: Knowledge and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5, 2026-202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Survey on actuation sexual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MONO 1201218561). Seoul: Korea.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earson, J. (2006). Personal control, self-efficacy in sexual negotiation, and contraceptive risk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gender. *Sex Roles*, 54, 615-625.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Whang, I. M. (2009).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of Korea, Daeje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Sexual health*. Retrieved October 25, 2010, from http://www.who.int/topics/sexual_health/en/
- Zimmer-Gembeck, M. J., & Helfand, M. (2008). Ten years of longitudinal research on U.S. adolescent sexual behavior: Developmental correlates of sexual intercourse, and the importance of age, gender and ethnic background. *Developmental Review*, 28, 153-224.

Factors Influenc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Do, Eun Su¹⁾ · Seo, Young-Sook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oung Science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Method:** Between October 2012 and November 2012, data related to self-efficacy, health knowledge, attitude to sex, and sexual autonomy orientation,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232 students. Th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ASW (SPSS) 18.0 program, and included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line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r=.56, p<.001$), sexual health knowledge ($r=.50, p<.001$), and attitude to sex ($r=.29, p=.001$). These 4 variables accounted for 48.7% of the variance in sexual autonomy among college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mental health nursing strategies for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counseling on sexuality and sexual health matters.

Key words : Self-efficacy, Knowledge, Attitude, Autonom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eo, young sook

Department of Nursing, Kyoung Science College

634, Ginsan-myeon, Chilgok-gun, Gyeongbuk-do, Korea, 718-851

Tel: 82-54-979-9531 Fax: 82-54-979-9745 E-mal: seo1657@naver.com